



5·3항쟁, 민동련과 인사연

1986년 5월 인천

글 : 권형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kwon1956@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료 중에서 5·3항쟁 사료를 찾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약칭 인사연)에서 1986년 5월 16일자 민주투쟁 특보로 발행한 '인천의 소리' 제11호다. 타블로이드판 2면 호의 형식으로 발행한 것인데 우선 한 가운데 크게 뽑은 시위현장의 사진이 눈에 띈다. 사거리를 꼭 매운 군중들 속에 맨 앞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고 큰 글씨로 쓴 플래카드를 선두로 하여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을 처단하자', '농가부채 탕감하고 민주농정 실시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7-8개의 플래카드가 죽 뒤로 늘어서 있고, 누군가 그 앞에서 마이크를 연설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사진의 질은 당시 인쇄 기술을 반영하듯 선명도가 떨어지지만 대체로 당시 시위 현장의 열기를 잘 전해 주고 있다.

기사 내용을 보면 5·3항쟁은 ‘민중, 민주화운동에 획기적인 분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민주사회 건설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하고, 당시 노동자, 청년, 학생을 비롯한 민중들의 ‘치열하고 치열한’ 투쟁을 묘사하면서 이들 민중들이 꾀기한 것은 ‘군사독재의 타도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중들의 꾀기에 대해 군부독재정권이 관제언론을 동원하여 폭력, 용공 운운하며 민주화 요구를 짓밟으려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폭력은 경찰 스스로 조장한 것이며, ‘반미’ 주장은 미국의 5·18민중항쟁에 대한 지원, 수입개방 압력 등으로 말미암은 민중들의 당연한 외침이므로 용공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3 구속자에 대한 경찰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자가 속출한다는 기사도 덧붙이고 있고,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82바늘을 꿰맨 건국대생의 사진을 실었다. 당시 경찰들의 폭력사태는 아주 심각했던 것 같다.

이 ‘인천의 소리’는 84년 11월 인사연 창립 이후 인사연의 정치적 주장과 운동론을 알리는 정론지 성격의 기관지로 1984년 12월 25일자로 창간되었다. 이 사료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지역조직의 초기 활동상황과 활동가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민통련과 인사연

5·3항쟁은 80년 5·18민중항쟁에서 87년 6월민주항쟁에 이르는 험난한 민주화투쟁 과정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투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에 많은 성찰과 반성을 남긴 운동이기도 했다. 5·3항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5·3항쟁의 시대적 배경과 5·3항쟁을 주도했던 대표적 재야단체인 민통련과 민통련의 가맹단체로서 5·3항쟁 현장을 주도했던 인사연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 민중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국내외 민주화 압력을 못 이기고 1983년 하반기에 정치인 해금, 제적학생 복학 등 이른바 ‘유화국면’을 열었다. 상대적으로 열린 국면 속에서 83년 9월 민청련을 선두로 하여 84년 노동, 문화, 청년 등 부문운동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지역에서도 84년 11월 전남, 인천 등에서 속속 지역민주단체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때 인천에서는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인천 출신 민주투사들이 모여 84년 11월 19일 제정구 씨를 중심으로 인사연을 결성한다.

85년 3월, 부문과 지역 민주단체들의 결집체로 민통련이 창립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는 전국학생연합(약칭 전학련)이 결성된다. 그리하여 80년 광주학살



▲ 5·3인천항쟁 당시 시민회관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시민들

이후 숨죽였던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이 반군사독재투쟁과 사회민주화투쟁을 다시 활발하게 전개한다. 그리고 85년 2·12총선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직선제개헌 요구를 매개로 하여 양 김 씨가 이끄는 야당 정치권과도 연대 움직임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진전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두환 정권이 다시 칼을 뽑아드는데, 85년 상반기부터 '탄압국면'으로 전환하여 대대적인 학생운동 탄압과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민청련 간부의 대대적인 구속이 이어진다. 이것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권연장을 위해서 최대 저항세력인 학생과 재야를 침묵시키고 야당 정치인들을 회유 분열시키려는 술책이었다.

재야와 정치권의 연결점에 민통련이 있었다. 민통련은 85년 10월 김근태 의장 고문·간첩조작 음모로 나타난 총체적인 야권 파괴공작에 대해 야권 전체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양 김 씨와 민주협이 개헌청원서명운동과 86년 3월 대학교수 등 각계의 시국성명을 계기로 서서히 불기 시작하는 국민들의 개헌열기를 군사정권 퇴진 투쟁으로 이어가고자 했다. 신민당 개헌추진 위원회 현판식이 3월 8일 서울을 시발로 23일 부산, 30일 광주, 4월 5일 대구, 19일 대전, 26일 청주로 이어지면서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행사장에 운집했다. 물론 이것은 군사정권의 폭압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언의 저항이었다. 민통련은 대구집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행사장 주위에 모인 시민들 속에서 현판식 행사와 별도로 독재정권 퇴진과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집회를 주도했다.

1986년 인천에서는

86년 5월 3일 예정된 신민당 인천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은 이러한 국민들의 개헌열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수십만 시민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모든 정치세력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신민당과 재야 운동권 사이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4월 29일 양 김씨가 “일부 급진세력의 반미 반핵 해방 논리 등의 주장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튿날 30일 청와대 3당대표회담에서 신민당 이민우 총재가 과격한 학생운동과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즉 재야운동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집권세력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통련을 비롯한 재야운동권은 이러한 신민당의 태도에 분노했다. 특히 급진적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세력은 신민당을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균열의 모습은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한편으로 재야와 노동·학생운동세력은 철저히 탄압하고 반면에 신민당은 회유하여 장내로 끌어 들여 제압하는 기회로 5월 3일 인천집회를 이용하려 했다.

민통련과 인사연은 5·3인천집회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결정적 계기로 삼아 야한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했다. 인사연 집행국장 이우재 씨 증언에 의하면 집회를 주도하는 간부들은 모두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눈에 잘 띄는 한복 10벌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고 본인도 입었다고 한다. 당시 민통련의 입장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노동 학생운동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동시에 신민당과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실제 투쟁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민통련이 5·3을 준비하면서 세운 원래 계획은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 10만 이상의 군중을 모아놓고 개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철야농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민통련과 인사연 회원들은 행사장인 시민회관 건너편 주안1동 성당에 전날부터 플래카드와 마이크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역시 우려했던대로 집회는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호용 인사연 의장을 비롯해 이우재, 홍성복 등 인사연 간부들과 장기표, 조춘구, 여익구, 안희대, 박계동 등 민통련 간부들은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평화적 군중 집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 시민회관에 운집했던 5만여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경찰들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해산되고, 민통련이 원래 계획했던 농성계획도 무산되었다.

다음 날 텔레비전에는 불타는 민정당사와 경찰차 모습이 계속 방영되고, 5·3 항쟁은 노동자와 학생들의 과격한 구호와 폭력이 난무하는 폭력봉기로 묘사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통련을 5·3항쟁의 배후로 몰아 대



▲ 인천 시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성복 의장과 인사연 회원들

대적인 탄압에 나선다. 문익환 의장이 구속되고, 이창복, 이부영, 임채정, 장기표 등 간부 전원에 수배령이 떨어지고, 인사연도 이호웅 의장을 비롯해 이우재, 홍성복 씨 등 주요 간부가 모두 수배되었다.

5·3항쟁에는 수도권 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의 제 정파가 거의 대부분 참여했고, 그들의 다양한 운동적 입장과 주장이 투쟁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한 다양한 입장과 주장은 그 이후 5·3항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당시에는 군사정권의 탄압 아래 있었고 군부독재퇴진이라는 공동의 당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열로 나타나지 않고 일단 물밑으로 잠복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6월항쟁 이후 다시 표면으로 부상한다.

어쨌든 당시 이 5·3항쟁은 정부와 관제언론에 의해 '폭력', '과격', '봉기' 등 원색적 용어로 포장되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시위를 주도했던 이우재 씨 역시 한 인터뷰에서 '5·3의 정신과 의미는 높이 사야 하지만 방법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던' 시위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민주화운동사 3권에서 이기훈 교수는 '5·3항쟁은 1980년 5월 이후 최대의 시위였으며,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대중동원 능력을 보여준 투쟁'이었던 반면, '민주화운동 내부의 분열을 여실히 드러내고 관념적 과격성을 드러냄으로써, 대중이 등을 돌리게 하고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